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고자~

성경 66권 말씀과 작정 다니엘 철야 기도회로 기쁨 등불을 준비하며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새해 첫날을 맞은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모든 죄를 대속하고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장 버거운 힘들고 놓기 어려운 분야라도 변개함 없이 결단하고 달려간다면 온전한 열매로 나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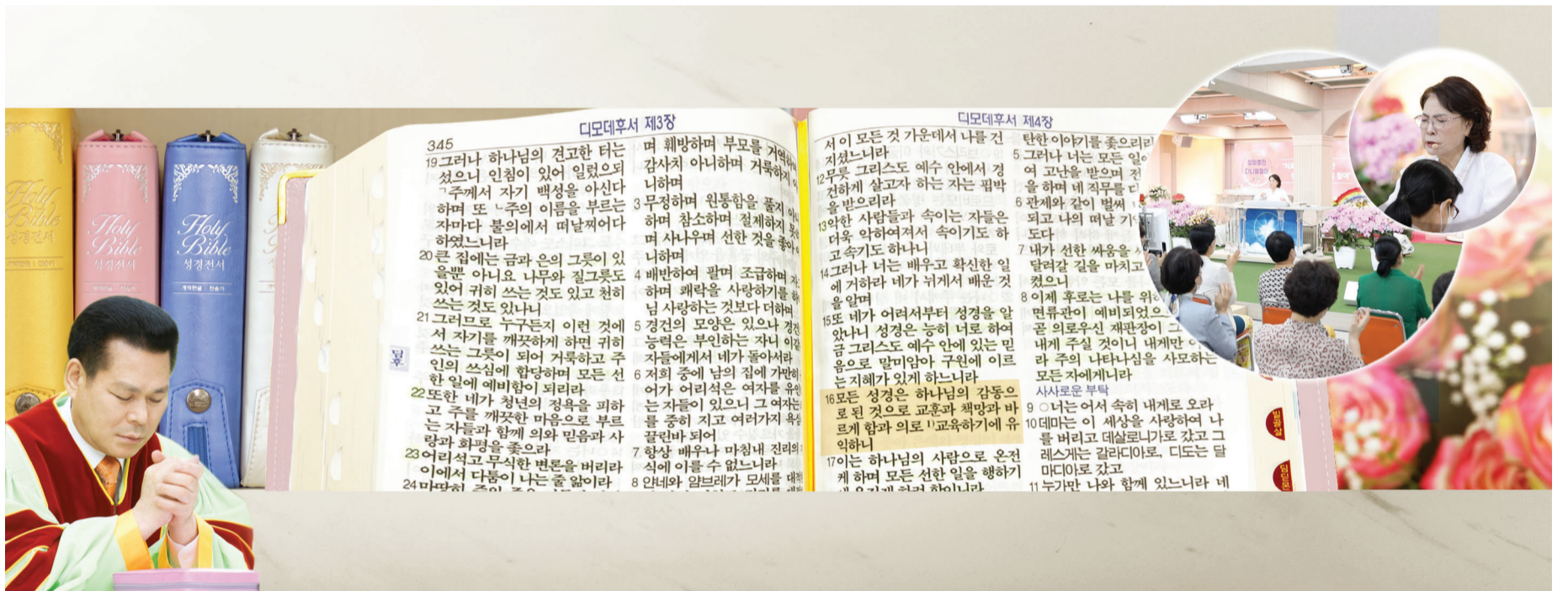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해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케 하니 삶이 변화되고 각종 질병이 치료 되는 등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은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85호 2023년 1월 2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말씀과 기도로 맞이한 축복의 새해! ‘전 성도 성경 읽기’와 ‘작정 다니엘 철야 기도회’



2023년 새해 첫날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고자 간절한 소망 가운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다.

교역자회가 주관한 ‘전 성도 성경 읽기’ 행사는 1월 1일부터 전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4개월간 이어진다.

GCN방송에서는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돕고자 하루에 30분씩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월, 화, 수, 목, 토요일은 오후 3시와 다니엘 철야 전·후에, 금요일은 오후 3시와 금요철야예배 전에, 주일은 대예배 전과 다니엘

철야 전·후에 방송하며, 이는 GCN방송 홈페이지(www.gcntv.org)에서도 동참할 수 있다.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전 성도 성경 읽기’ 행사와 더불어 성도들은 만민기도원(이복님 원장)에서 주관하는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날마다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 특별히 지난 1월 15일까지 3주간 진행된 ‘작정 다니엘 철야’는 새해 7가지 기도제목과 새해 첫 은사 집회를 위해, 그리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새해를 맞았다.

우리 교회 ‘다니엘 철야’는 매일 밤 GCN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전 세계에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단, 금요일은 금요철야예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한 대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을 읽으며 불같은 기도를 병행할 때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긴다. 그리하여 성경을 가까이할 뿐 아니라 불같은 기도를 병행하므로 비로소 주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새해를 맞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길 기원한다.

### 새해 첫 ‘환자를 위한 은사 집회’

지난 1월 13일 밤 11시에 시작한 금요철야예배 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2023년 첫 환자를 위한 은사 집회가 개최되었다.

집회는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위성, 유튜브, 인터넷으로 전 세계 곳곳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강사 이수진 목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



3:5~10)라는 말씀을 전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국내외에서 접수한 환자들의 병명을 하나하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결과, 실시간 간증 접수로 시공을 초월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교회 홍보 잡지 <만민투데이> 신년 호 발간

지난 1월 19일, 우리 교회 홍보 잡지 <만민투데이> 신년 호가 발간되었다. <만민투데이>는 계간으로 발간되며, 종이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북으로도 동시 발간되어 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해당 기사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보거나 들을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년사, 2022년 하반기 중요 행사, 인물 인터뷰, 해외에서 보내온 새해 인사, 코로나 시대에도 전 세계에서 활발히 펼쳐지는 만민의 선교 사역 등 은혜롭고 행복한 소식이 수록되어 있다.



#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한일서 4:9~10)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록된 창세기부터 장차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며 깊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존귀와 위엄을 갖추고 오신 것도 아니었고 호화로운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릇인 구유에 누이셨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전 12:13),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인데(잠 8:13) 사람이 범죄하여 짐승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전 3:18).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짐승의 우리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의 참된 양식이 되시기 위해(요 6:51)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의 본분을 찾게 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하고 병들어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무실 곳이 없어 들에서 누우시며 추위를 견디고 비를 맞기도 하셨고(마 8:20), 잠수실 것이 없어서 주리시는 일도 있었지요. 이처럼 낮은 자리에 거하시며 가난하고 험벗은 길을 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고후 8:9).

## 2.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색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신 예수님

때가 이르매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 위해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표적을 시작으로(요 2장), 유대와 갈릴리 인근 지역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지요.

한번은 예수님께서서 나인 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신 일이 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눅 7:16). 또한 태어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자 그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요 9:32~33)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요.

이렇게 온갖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좇았습니다(마 4:17~25).

## 3.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를 본 회당장이 분내며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말하지요(눅 13:14). 즉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레 23:3)는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에만 급급했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들도 먹이고 살려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고통에서 해방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깨우쳐 주십니다(눅

13:15~16). 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심령을 해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해치 못 하며 오히려 부끄러워했지요. 또한 온 무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눅 13:17).

## 4.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장사 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요 11:41~44).

이 일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진실이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임을 증거했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욱 혈안이 되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자신들의 메시아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실 때 심히 애통하며 탄식하셨습니다(눅 13:34).

## 5.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유월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을 내린 상황이었지만(요 11:57),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눅 9:9).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지요.

이때 유월절을 준비하러 온 수많은 유대인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서 자기 겼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며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막 11:8~10).

예수님께서서는 체포당하기 하루 전인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지요. 식사를 마친 후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품소 씻겨 주셨습니다(요 13:3~11).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써 피조물의 가장 더러운 곳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

인 발을 씻기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깨끗게 하고, 겸손해야 할 것과 서로 섬겨야 할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행함으로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 6.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예언하시며 딱 한 조각을 찢어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셨지요(막 14:21).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을 전해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여 돌아킬 기회를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지요(막 14:30). 이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는 하지만, 후일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구나.’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요 13:1).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이 당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심어 주셨지요. 천국 소망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요 14:1~3).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김과 같이 제자들도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8) 하고 말씀해 주셨지요.

### 7.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서는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겻세마네 동산에 가서서 앞으로 자신이 당할 고통을 이기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막 14:36).

예수님의 눈앞에 닥쳐온 고난은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감당하셔야 하는 고통과 함께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외면당하셔야 하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아들이 십자가를 지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어 죄악을 행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 8. 인류를 구원코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침내 골고다 처형장에 끌려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손에 의해 고난을 겪으시고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지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심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므로(히 9:22)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지요.

이렇게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 매달려 있어야 하므로 매우 고통스럽습

니다. 세 시간 동안이나 고통당하셨는데, 정오 12시가 되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느끼며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하늘도 빛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운명 직전에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막 15:34). 사랑하는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로 나오라는 간절한 호소였지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갈 무수한 사람에게 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지요. 또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눅 23:46).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다 헐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이루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죄악 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만세 전에 예비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롬 5:8).

이러한 사실을 정녕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임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만사형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획특집

#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죄 사함을 주시며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영을 낳아 영의 마음을 이루고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는 참 자녀가 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목표를 이루고자 결단했나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나도 언젠가는 영의 마음을 이루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목적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와 새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 등 분명한 이유가 내 안에 생겼을 때 목적의식이 비로소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깊이 깨우쳐질수록 신속히 그 사랑의 열매로 나와야겠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생겨서 짧은 시간에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고 있나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결단한 사람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막 10:29~30).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나를 고집하고 있다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버리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라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올 때 순종할 수 있고 효용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려면 변개함이 없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행한 사람이라면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리나라는 순종이라면 변개함이 행하기 때문에 영적 변화를 이뤄갈 수 있지요. 이때 변개함 없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개함의 속성을 뽑아버리기 위해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실천해 간다면 그 하나하나가 쌓여 변개함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장 버리기 힘들고 놓기 어려운 분야라도 변개함 없이 나아간다면 참된 결단이 되어 온전한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 “하나님 말씀으로 제 삶이 변화되니 관절염과 족저근막염 등 질병이 치료되었어요!”

마리아 벨리스 빠바 꼬르데스 성도 (64세, 콜롬비아만민교회)

2022년 초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는데, 그날 밤 다리와 발에 통증이 심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오른쪽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이 들었지요.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잘 움직일 수가 없고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식사도 간신히 할 정도였고, 등 통증도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받아보니 ‘손가락 관절염’과 ‘족저근막염’, 백신 부작용에 따른 ‘근육 경련’이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와 통증을 완화하는 약을 받았지만, 저는 약은 먹지 않고 통증을 견디며 은사 집회에서 치료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1월과 3월, 두 차례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받고자 했으나 응답받지 못하니 낙심해 기운을 잃고 말았지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율기 강해 설교는 마치 제 마음을 꿰뚫고 영적인 눈을 씻어주는 생명수 같았습니다.

이처럼 설교 말씀을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니 “제가 읊입시다. 제가 읊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고 스스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반복해 나왔지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과 회개로 가득했고, 숨은 악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율기 강해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 들으며 제 마음을 계속 씻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5월 은사 집회를 통해 기도 받은 뒤에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지요. 8월 만민하게수련회 후에는 더욱 좋아져 집안일은 물론 학교 일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인근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의 어두운 악들을 발견해 버리며 크게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영상 설교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통해서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을 발견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9월 30일 은사 집회 때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은 뒤 저는 온전히 치료받았습니다. 엄지손가락 관절염이 치료되어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한 족저근막염과 등 통증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사라지니 제 말투와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제 모습을 보며 학생들도 성적과 행실이 좋아져 다른 선생님들이 몹시 부러워하고 있지요.

제 딸의 신앙도 성장해 하나님의 무한



한 사랑을 느끼니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귀한 성결의 복음으로 양육 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매일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니 늘 평안하지요.

저는 성결의 복음을 많은 영혼에게 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내향성 발톱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김숙희 권사 (61세, 3세대 18교구)

서 치료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2021년 12월, 은사 집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지만 내향성 발톱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먹고 염증을 가라앉힌 후 발톱을 빼거나 기구를 이용해 들어올려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은사 집회를 통해 기도로 구하지 않았던 빈혈과 고지혈증을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은사 집회에서 치료받고자 ‘작정 다니엘 철야’

에 참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양말을 벗고 내향성 발톱을 보여드리자 어떤 집사님이 “죄가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고 계심을 느끼며 치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한 주간 아침 금식을 하면서 ‘그 죄가 무엇인지’ 궁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중, ‘영적 교만’이 깨우쳐지면서 통회자복의 은혜가 임했고 제 마음은 응답의 확신으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2022년 1월 21일, GCN방송으로 참석한 은사 집회에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 다음 날 자고 일어나 보니 발톱 통증이 많이 사라졌고 염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발톱 끝에 튀어나온 부분을 파보니 좀살만 한 뽕쪽한 것이 빠져나왔고 이내 시원해지더니 모든 통증이 사라졌지요. 그날 부기도 완전히 빠졌고 염증도 가라앉아서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가운데 발톱의 무좀까지 치료해 주셨지요. 할렐루야!

내향성 발톱을 치료해 주시고 영적인 분야까지 섬세하게 터치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1년 8월 말이었습니다. 오른쪽 엄지발톱을 조금 깊게 깎았는데 며칠 후 발톱 부근이 빨개지더니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두 달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염증이 계속돼 병원에 가서 검진받아보니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내향성 발톱’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제 부족한 점을 돌아보았고, 대대교구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다. 다음 날 신발을 구겨 신지 않고 바로 신고 편안히 걷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여방동1099-2 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57 광려편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민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